

# 종합건설전문기업으로 거듭나는 한신공영

한신공영은 지난 1950년 공업용 보일러 생산업체인 한신축조공업사를 모체로 출발, 60년대말부터 건설업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성장하였다.

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발판으로 신반포지역에 2만여 세대의 대규모 한신아파트타운을 건립하며 주택업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한신공영은 이후 서울지역은 물론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등 현재까지 약 18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며 주택건설의 대표적 업체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지난 70년대말부터 중동에 진출 쿼웨이트 종교성복합건물, 리야드~담만간 고속도로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취재 | 박병기 기자〉



320:1의 높은 청약율을 기록한 방배동 한신트리플 전경

**한** 신공영의 고속성장에는 철저한 '고객중심경영과 품질경영'이 큰 몫을 담당했다.

89년부터 한신공영은 건설업계 최초로 품질 및 입주관리에 관한 '품질관리 TOTAL SYSTEM'을 구축, 하자방지 및 보다 앞선 사전관리(B/S : Before Service)와 사후관리(A/S : After Service)를 전사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한신공영의 '품질관리 TOTAL SYSTEM'은 시공전, 시공단계, 준공입주단계, 입주 후 관리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이다.

또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임직원들이 완공아파트의 품질검사 및 청소까지 책임지는 한신만의 Z.D.S(Zero Defect System) 실시로 한신아파트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6년 업계 최초로 주택연구실을 설립, 설계 및 신소재 마감재 개발, 디자인개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백화점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던 주부모니터제도를 주택에도 적용 실시,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보다 편리한 가사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한신은 아파트 입주후 하자보수문제, 부실문제, 각종민원 등으로 입주자들이 회사를 찾아와 데모를 벌이기 일수였던 주택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아파트를 정성껏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자들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40회에 걸쳐 수여받기도 했다. 또한 '품질관리대상' 수상, '건설경영대상' 수상 등 각종 품질관련 수상을 통해 한신아파트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2001년 프리미엄 2위를 기록한 청담동 한신플러스타운 조감도

한신공영은 아파트, 빌딩 건설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과 대형 토목, 전기공사에도 적극 참여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공사에서 특별한 노하우를 구축하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수서I/C 등 국가의 대형 도로망 구축에는 어김없이 한신공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영동고속도로 교각공사(성산2교)는 교각 높이만 100m에 달해 동양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중 육십령터널은 3.2km에 달하는 연장으로 국내 3번째로 장대한 터널이다.

또한 한신공영은 건국 이래 최대공사라고 하는 경부고속철도공사 및 화옹지구 간척사업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 기술집약 공사인 765kW 신서산 T/L 공사 등 토목, 전기, 플랜트, 철도, 도로, 교량, 지하철, 광역상수도, 간척사업 등 전분야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간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신공영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더 한층 강화된 품질경영 및 고객만족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이후 분양한 행당동(13:1), 서초동(64:1), 동소문동(40:1), 청담동(189:1), 방배동(320:1) 아파트 사업에서 전세대 1순위에서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완료하여, 주택 건설 명문 업체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2000년, 2001년 아파트 프리미엄 조사에서도 한신아파트가 1, 2위를 기록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2002년을 맞이하여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법정관리 탈피와

클린 컴퍼니로의 변신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오던 건설, 유통 분리매각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자구노력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신장을 거두고 있던, 한신코아백화점 4개점의 M&A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약 2,000억원의 부채 탕감 및 3,100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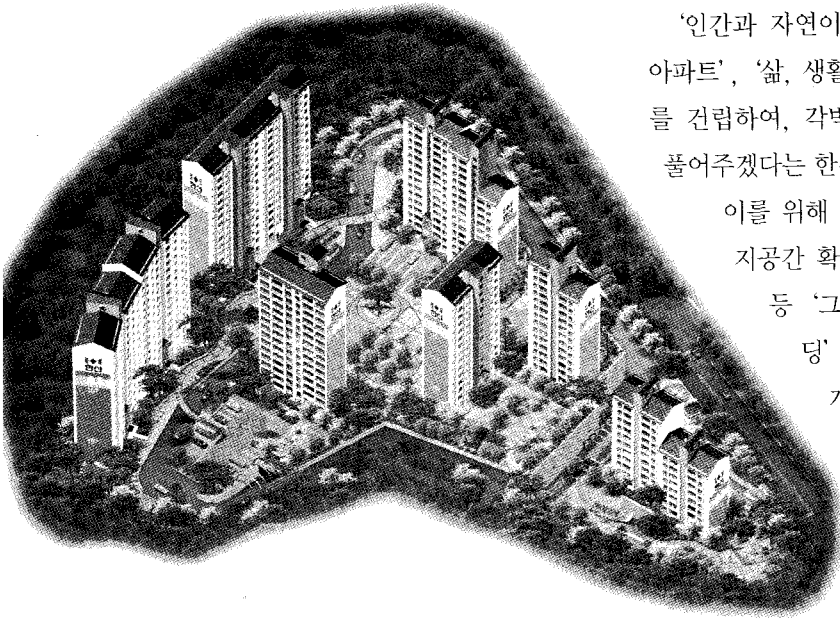
이로써 한신공영은 신규사업 수주에 겪던 어려움을 털게 되어, 공공공사 및 신규 아파트 사업 수주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신공영은 2002년 총 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1년 청담동, 신사동, 방배동 등의 분양 성과를



신개념 최첨단 아파트형공장 한신IT타워 전경



그린빌딩 인증을 획득한 신사동 한신 플러스타운 조감도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아파트’, ‘친환경적인 아파트’, ‘삶, 생활, 마음이 편히 설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여, 각박한 도심생활의 피로를 편안하게 풀어주겠다는 한신공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한신공영은 향후 분양아파트에 녹지공간 확보 및 조경시설, 친환경자재 선택 등 ‘그린아파트’ 개념을 도입한 ‘그린빌딩’ 인증을 기본으로 받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시범적으로 2001년 신사동 한신플러스타운 분양에서 ‘그린빌딩’ 인증을 받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린빌딩은 자연환경의 보존,

에너지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쾌

발판으로 2002년에도 성동구 금호동 323세대, 동작구 본동 381세대, 마포구 대흥동, 강남구 대치동 등 소위 서울의 노른자위라 불리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인천, 안양, 천안, 부산 등 전국에 걸쳐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급빌라형 아파트인 ‘한신 오페라하우스’, 첨단주상복합 오피스텔인 ‘한신 트리플’ 등 소규모 틈새사업 및 선진 주거문화 구축을 위한 시장에도 적극 뛰어든 예정이다. 그리고 한신공영은 21세기에 걸맞는 신개념의 아파트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인 ‘한신 休’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신 休’는 21세기의 핵심테마인 자연, 환경, 건강을 테마로 해서 건립되어지는 아파트로서, ‘삶의 休’, ‘생활의 休’, ‘마음의 休’ 세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다.

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일컫는 용어이며, 환경부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조건에 맞는 건축물에 ‘그린빌딩’ 인증을 해주는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건축인증제도이다.

따라서 한신공영은 올해 ‘한신 休’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분양하게될 아파트에는 첨단 정수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자동환기시스템, 첨단환경시설(바이오 맥반석 물탈, 무독성 천연페인트, 참숯 초배지, 음식물 분해기, 소음 저감시스템 등), 첨단정보통신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 각종 최첨단 시스템 및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유통부문을 매각하고 종합건설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한신공영은 올 한해를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고객만족’, ‘품질경영’, ‘기술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㉞